

‘미투’ 오달수 하차에 캐스팅 논란 잇단 악재

tvN ‘나의 아저씨’ 성공할까

‘미생’ PD·‘또 오해영’ 작가 협업해 화제

“이 시대 평범한 아저씨들의 모습 그렸다”

주연 이선균·아이유 커플연기 논란 여전



아이유(왼쪽)·이선균

잇단 악재를 만났던 tvN ‘나의 아저씨’가 21일 밤 9시10분 첫방송됐다. 이 드라마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나의 아저씨’는 이선균(43)과 아이유(25), 두 스타가 주연을 맡았지만 제작발표회 없이 방송을 시작했다.

잇단 악재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제작진은 “계절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촬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작발표회를 못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 배우의 나이 차가 18살에 이른다는데 때문에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아이유의 팬들을 중심으로 ‘원조교제’와 다름 없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내용 역시 유부남과 아가씨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담고 있어 팬들은 더욱 마뜩잖아했다.

30대 남자 배우 기근 속 ‘미투갑’ 이상의 나이 차가 나는 남녀 주인공 커플을 내세운 드라마가 많이 등장하는 추세임에도 ‘나의 아저씨’에 대한 여론이 특히 안 좋았던 데는 소녀 감성을 상징하는 아이유의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상가상 지난달에는 사회적으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속 제작진이 ‘상훈’ 역으로 야심차게 캐스팅했던 오달수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결국 오달수는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다음날 박호산이 그의 바통을 이어 드라마에 합류했다. 오달수가 이미 촬영을 진행했던 부분을 폐기하고 박호산이 ‘상훈’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찍었다.

영화계에서 ‘천만 요청’이라 불리던 오달수는 연출을 맡은 김원석 PD가 삼고초려해 어렵게 캐스팅한 배우였고, 그만큼 드라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카드였기에 김 PD가 받은 충격과 상실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교체는 또 있었다. 극중 삼형제의 어머니 역을 맡았던 나문희가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면서 고두심으로 부랴부랴 배우가 교체됐다.



그에 앞서 이지가 캐스팅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한 매체가 친일파의 후손인 배우들을 거론한 기사에 이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지가 ‘나의 아저씨’를 통해 4년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이 불만을 제기했다.

‘나의 아저씨’는 ‘미생’과 ‘시그널’을 히트시킨 김원석 PD와 ‘또 오해영’의 박해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지만, 출발부터 잇단 논란과 악재를 만나면서 첫방송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드라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마흔이 안 된 삼형제와 한 여자가 상대방의 삶을 바라보며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다. 제목처럼 삼형제는 모두 세상에서 ‘아저씨’라 불리는 평범한 40대 남성들이다.

제작진은 21일 “드라마 속 주인공 남자들은 전부 어떤 식으로든 능력자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

그런 능력자들이 있었던가. 있었다고 한들, 그런 능력자들 덕분에 감동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며 “우리가 있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들을 그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호산이 맡은 삼형제의 첫째 상훈은 22년 다닌 회사에서 잘리고, 장사에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여기저기 몸 성한 데 없는 내리막길에 선 아저씨다.

그레도 상훈은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인생에 돈은 없지만 재미는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49세 귀여운 아저씨다.

이선균이 맡은 둘째 동훈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건축구조기사다. 큰 욕심도 없고 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45세 착한 아저씨다. 그러나 그의 아내(이지아 분)는 다르다.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살수 없다”며 공부해 사법고시에 붙었고, 아들도 만리타향으로 조기 유학 보냈다.

송새벽이 연기하는 셋째 기훈은 한때 영화계의 셋별이었으나, 지금은 큰형 상훈과 함께 형제정성방을 운영한다. 오랜 꿈을 포기했지만 자신에게만큼은 당당하고 싶은 42세 당당한 아저씨다.

이들 삼형제의 앞에 어느 날 21세의 이지안이 나타난다. 아이유가 연기하는 이지안은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몰래 이주 하루하루 다치는 대로 일하고, 다치는 대로 먹고, 다치는 대로 살아온 차갑고 거친 여자다.

‘나의 아저씨’의 박호식 tvN CP는 “40대를 넘어선 남성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마치 한물간 사람, 트렌드에 뒤처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아저씨들에게도 이유와 사연, 꿈이 있다”며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실제 모습이 어떻게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연협뉴스

최근 종영한 ‘황금빛 내 인생’ 신현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것”

막내 역할 완벽 소화 눈길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 속 아버지 서태수(전호진 분)는 막내 아들 지호(신현수)에게 자녀 중 가장 적은 1000만원을 남겼다.

‘저 녀석은 알아서 잘 살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를 연기한 배우 신현수(29·사진)는 “사업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지호의 모습에서 아버지가 안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남기신 것 같다.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기뻐다”고 웃었다.

드라마 종영 후 앞으로 포상휴가를 다녀온 그는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야 내가 정말 ‘국민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서른이 되기 전 함께한 작품이라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제게 성장 드라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주말극에서 막내아들은 철부지로 그려지기 마련이지만 지호는 귀여우면서도 든직한 캐릭터였다.

“극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였던 덕분에 저도 한 걸음 벗고 더 편안하게 지호에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지호의 어머니였던 김혜옥 선생님께서도 “너는 어쩔 그렇게 자유롭게 연기하니” 하고 칭찬해주셨죠. 저도 지호가 있을 때는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눈물을 닦아준다든지 하는 건 정말 지호로서 하고 싶은 행동을 한 거였어요.”

신현수는 서현 역의 이다인과 ‘커플인 듯 커플 아닌 커플 같은’ 연기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극에 무거운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나올 때 발랄하고 산뜻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친구로 남은 게 아쉽지 않나요? 애초에 정해진 결말이었고, 그래서 더 예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클럽에 온 서현이가 지호에게 손소리를 듣고 돌아가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 그 장면에서 저 실제로 ‘심쿰’했어요. 감정에 충실한 서현이가 광화문에 배 보였죠. 하지만 서현이는... ‘친구로’ 좋은 성격일 것 같아요. 하하.”

신현수는 2015년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으로 데뷔해 ‘청춘시대’(2016), ‘세가지색 판타지-우주의 별이’(2017), ‘군주-기암의 주인’(2017), ‘청춘시대2’(2017) 등 짧은 기간 다양한 도전을 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연극부에서 연극에 대한 재미를 느낀 후 꿈이 변한 적이 없다”며 “대학 졸업 후에는 극단을 직접 만들어서 공연하고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계속 상업 작품 오디션을 봤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있었어도 후회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신현수는 그러면서 “지호를 연기하고 나서 어르신들께서 절 보는 눈빛이 정말 막내아들을 보는 것처럼 따뜻해졌다”며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이제 시작인 만큼 새로운 작품마다 새로운 색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주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테마기행길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특보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공사참립특집 내 아이를 부탁해 2부작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사랑의 가족		00 12 MBC 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림설계
1	20 공룡 메가드 5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00 이웃집 찰스 (재)	35 밤상 차리는 남자 (재)	55 닥터 365
2	20 팔도방송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에어로빅 50 판결의 온도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타남메카드 R 30 주간연예수첩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퀘스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이벤트 TV 인사이드	55 판결의 온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0 KBS 스페셜			
10	45 스포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리턴
11	3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열 40 사이언스 오디세이 신비한 인체의 비밀	10 해피투게더	1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황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북한판 '진짜 사나이')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마 깎두리와 마 우동)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대마기행(재)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노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스페셜	11:20 세계대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뽀롱뽀롱 뽀로로 09:00 똑똑맨 09:15 두다다쿵 09:30 플랑	13:00 지식채널(재) 13:10 장수의 비밀 (여든 다섯, 달려라 청춘) 13:40 다큐 시선 (빛 건너는 사회)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 1~4 19:00 사이언스타 Q (생무지개를 만들어라) 19:30 EBS 뉴스 19:50 엄마를 찾자(재)
	20:40 세계대마기행 (상상보다 멋진 터키 4부 또 하나의 세계 카파도키아) 21:30 한국기행 (남쪽으로 튀어 4부 어느 거친 봄날에) 21:50 다큐 시선 (아동학대의 늪, 대물림)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4:05 지식채널(재) 24:10 과학 다큐 비온드(Beyond) (웨어를 못, 강하 인간을 꿈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2일(음 2월 6일 癸丑)
子	48년생 중차대한 시기이니 만큼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60년생 차제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는 길이다. 72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84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30	42년생 좀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54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66년생 남비가 있을 수다. 78년생 회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90년생 실수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3, 16
丑	49년생 열과 성을 다한다면 성과를 거두게 된다. 61년생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살피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다. 73년생 가법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호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9, 57	43년생 제반사를 원점에서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55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 할 수 있다. 67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79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91년생 급변된 될 수 있음을 참고하라. 행운의 숫자 : 23, 02
寅	50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해 잡아라. 62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74년생 바쁜 일상 속에서 귀중한 것을 놓칠 수 있다. 86년생 시종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89, 53	44년생 판국을 좌우할만한 역량이 요동친다. 56년생 아무리 마음이 앞서더라도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8년생 모순점이 보일 것이니 지체 없이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안정 궤도에 진입하라. 행운의 숫자 : 75, 86
卯	51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63년생 오매불망으로 회귀하여 왔던 영광을 안는다. 75년생 숨은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87년생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한 대목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3, 51	45년생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성국이다. 57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69년생 말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81년생 여파가 상당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5, 31
辰	52년생 아직은 서론에 진입하는데 불과하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64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76년생 찬스란 얻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88년생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13, 24	46년생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58년생 지난 날의 실적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70년생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82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70, 62
巳	53년생 결집 속에서 생산적인 모습으로 되살아 날 것이다. 65년생 자신감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77년생 계획이 구체적이고 내용성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89년생 탄력이 없을 때 집중중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00, 92	47년생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즉시 찾을 수 있다. 59년생 발전의 발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71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도 된다. 83년생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라서 애매하리라. 행운의 숫자 : 81, 46